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3.3.7

나스닥, 애플 강세 불구하고 파월 발언 기다리며 금리 상승으로 하락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애플의 강세 등에도 금리 상승으로 상승폭 축소

•미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국채 금리가 하락하자 상승 출발. 특히 OECD 경기 선행지수 발표에 따른 글로벌 경기에 대한 자신감과 더불어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애플(+1.85%)이 모건스탠리에 이어 골드만삭스가 서비스 부문 성장을 이유로 매수 의견을 발표하자 급등한 점도 우호적인 영향. 다만, 국채 금리가 상승 전환 후 폭을 확대하자 매물 출회되며 나스닥이 하락 전환하는 등 시장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며 차익 실현에 주목 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중소형 지수인 러셀2000지수의 낙폭 확대가 특징(다우 +0.12%, 나스닥 -0.11%, S&P500 +0.07%, 러셀2000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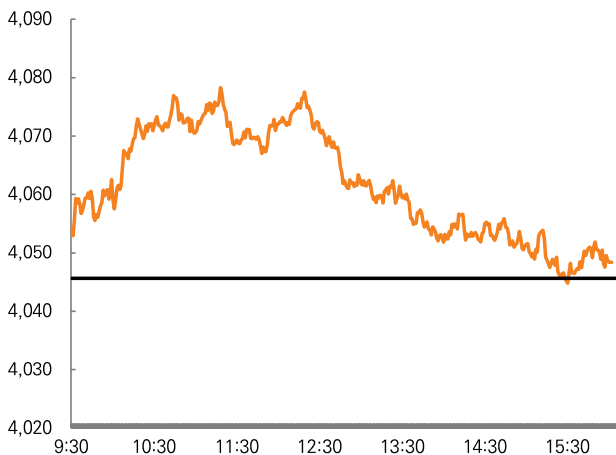
특징 종목: 애플 강세 Vs. 테슬라, 2차전지 업종 부진

•애플(+1.85%)은 지난 금요일 모건스탠리에 이어 골드만삭스가 서비스 부문 성장 확대와 높은 브랜드 충성도를 바탕으로 한 신제품 출시 후 아이폰 수요 증가 기대, 그럼에도 매력적 밸류에이션을 근거로 매수 의견을 발표하자 상승. 테슬라(-2.01%)는 수요 증대를 위해 고급 모델 X와 S의 가격 인하를 발표하자 하락. 특히 모건스탠리가 페라리를 테슬라 대신 전기차 부문 탐픽으로 대체했다고 발표한 점도 부담. 로드타운 모터스(-8.93%)는 예상보다 큰 4분기 손실 등으로 급락. 퀴텀 스케이프(-4.57%), 알버말(-0.96%), 에너지스(-1.40%) 등 여타 2차 전지 업종도 동반 하락

한국 증시 전망: 차익실현 욕구 확대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0.21% 상승, MSCI 신흥 지수 ETF는 0.35%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98.2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11% 하락. KOSPI는 0.3% 내외 하락 출발 예상.
 •미 증시가 장 초반 애플의 힘으로 상승 출발했으나, 장 중 국채 금리가 상승 전환하고 달러화도 약세폭을 축소하며 상승분을 반납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미 증시의 특징처럼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져 4일 연속 상승을 뒤로하고 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부담. 미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지수(-1.48%)가 상승 출발 후 금리 상승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 속 매물이 출회되며 낙폭을 확대한 점도 투자심리 위축 요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3% 내외 하락 출발 예상되며 차익실현 욕구가 높아 최근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군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확대돼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글로벌 투자 파트너 -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462.62	+1.26	상해종합	3,322.03	-0.19
KOSDAQ	816.51	+1.76	홍콩항생	20,603.19	+0.17
DOW	33,431.44	+0.12	베트남	1,027.18	+0.24
NASDAQ	11,675.74	-0.11	유로스톡스 50	4,313.78	+0.44
S&P 500	4,048.42	+0.07	영국	7,929.79	-0.22
캐나다	20,514.80	-0.32	독일	15,653.58	+0.48
일본	28,237.78	+1.11	프랑스	7,373.21	+0.34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① OECD 경기선행지수 ② 달러와 금리 영향 지속

글로벌 경기의 바로미터인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98.57에서 98.53으로 기준선인 100.0을 하회한 가운데 둔화가 지속. 그렇지만, 전월 대비 둔화 폭은 0.04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둔화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이러한 추세를 감안 OECD 경기 선행지수의 바닥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줘 전반적인 투자심리에는 긍정적인 흐름. 특히 미국의 경우 98.47에서 98.45로 전월 대비 0.02 위축에 불과해 지난해 여름 즈음의 0.30 내외의 둔화에 비해 그 폭이 크게 축소되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 영국 등은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물론, 한국은 98.27에서 98.11로 브라질은 98.70에서 98.49로 둔화되는 등 신흥국의 둔화세가 확연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 또한 전월 대비 둔화 폭은 축소되고 있음. 결국 OECD 경기 선행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하회하고 있으나 유럽과 미국, 중국 등으로 인해 둔화폭이 축소되고 있어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완화. 다만, 경기 선행지수의 바닥이 다가올 뿐 경기의 바닥은 올해 연말 즈음이라는 점에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기 보다는 지수 하락 압력을 완화시키는 요인 정도로 볼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달러와 금리의 영향이 더 큼.

한편, 보험권으로 출발했던 달러화는 약세폭을 확대한 반면, 국채 금리는 상승 전환하며 시장에 영향. 달러화는 파월 연준의 의회 청문회와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여타 환율에 대해 보험 출발 후 약세폭 확대. 최근 발표된 ECB 의사록에 이어 라가르드 ECB 총재가 3월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주장한 가운데 오늘은 강한 매파적인 성향의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이자 ECB 정책위원인 홀츠만 총재가 향후 4번의 회의에서 모두 50bp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유로화가 강세를 보인 점이 달러 약세 요인. 유로존의 금리인상 속도가 미국보다 확연히 빠르다는 점이 달러 약세를 부추겼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장 후반 국채 금리 상승으로 달러화도 약세폭이 축소

지난 금요일 연준이 의회에 제출한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연준은 3월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물가는 하반기에 주거비 중심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해 국채 금리는 장 초반 지난 금요일 급락에 이어 10년물 기준 3.9%를 하회하기도 했음. 그렇지만, 홀츠만 총재의 강한 매파적인 발언으로 유로존 국채 금리가 상승하자 미 국채 금리도 상승 전환. 여기에 파월 연준의 의회 청문회와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연준의 최고 금리 상향 조정 가능성이 부각되자 10년물 기준 4% 가까이 다가서는 등 변동성이 확대. 특히 장 후반 금리가 상승폭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달러는 약세폭을 축소하자 주식시장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폭 축소하는 등 변화를 보임. 특히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지수의 낙폭이 확대된 가운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하락 전환하는 등 투자 심리가 위축된 점이 특징



애플 상승 Vs. 테슬라 하락

애플(+1.85%)은 골드만삭스가 서비스 부문 성장 확대와 높은 브랜드 충성도를 바탕으로 아이폰 수요 증가 기대, 매력적 밸류에이션을 근거로 매수 의견을 발표하자 상승. 스냅(+9.48%)은 미 의원들이 틱톡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급등. 머크(+3.94%)는 심장과 폐의 혈관에 높은 압력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질병을 가진 환자들의 운동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돕는 약물에 대한 임상 실험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발표되자 상승.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엑슨모빌(+0.87%), 셰브론(+0.73%) 등은 강세를 보였으나,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하자 천연가스 생산 업체인 코테라 에너지(-2.62%), APA(-2.43%), EQT(-4.13%) 등은 부진. 중국 정부의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보수적으로 발표되자 프리포트 맥모란(-2.26%), 뉴코(-1.59%), 스틸 다이내믹스(-3.00%), US스틸(-4.40%) 등도 부진.

테슬라(-2.01%)는 수요 증대를 위해 고급 모델 X와 S의 가격 인하를 발표하자 하락. 특히 모건스탠리가 페라리가 테슬라 대신 전기차 부문 탑픽으로 대체했다고 발표한 점도 부담. 로드타운 모터스(-8.93%)는 예상보다 큰 4분기 손실 등으로 급락. 쿼텀 스케이프(-4.57%), 알버말(-0.96%), 에너지스(-1.40%) 등 여타 2차 전지 업종도 동반 하락. 반면 광학 네트워킹 인프라 회사인 시에나(+3.67%)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한 데 힘입어 강세. 알트리아(+1.41%)는 전자 담배 제조회사인 NJOY 홀딩스를 인수한다고 발표하자 강세.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1.95	대형 가치주 ETF (IVE)	-0.23
클린테크 ETF (CTEC)	+1.11	중형 가치주 ETF (IWS)	-0.77
소매업체 ETF (XLY)	-0.73	소형 가치주 ETF (IWN)	-1.58
온라인소매 ETF (EBIZ)	-0.70	대형 성장주 ETF (VUG)	+0.11
미국 인프라 ETF (PAVE)	-1.13	중형 성장주 ETF (IWP)	-0.69
핀테크 ETF (FINX)	-0.51	소형 성장주 ETF (IWO)	-1.37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00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56
클라우드 ETF (CLOU)	-0.34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1.02
사이버보안 ETF (BUG)	-0.81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11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1.16	미국 국채 ETF (IEF)	-0.18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0.61	하이일드 ETF (JNK)	+0.08
바이오섹터 ETF (IBB)	-0.93	신흥국 채권 ETF (EMBD)	-0.37
로봇&AI ETF (BOTZ)	-0.45	물가연동채 ETF (TIP)	-0.54
반도체 ETF (SMH)	-0.89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27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IT	2,454.86	+0.53	+2.94	+0.40
커뮤니케이션	178.83	+0.46	+3.30	-5.89
유틸리티	336.28	+0.43	+0.51	-3.38
필수소비재	758.17	+0.33	+0.10	-1.16
에너지	664.95	+0.10	+2.72	+1.31
금융	596.93	-0.02	+0.83	-1.76
헬스케어	1,502.39	-0.06	+0.76	-2.26
산업재	872.77	-0.20	+2.19	+0.50
부동산	242.25	-0.40	+1.00	-5.29
경기소비재	1,127.45	-0.71	-0.28	-4.06
소재	523.14	-1.65	+2.07	+0.61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차익 실현 욕구 확대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0.21% 상승, MSCI 신흥 지수 ETF는 0.35%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98.2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11% 하락. KOSPI는 0.3% 내외 하락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미 증시가 국채 금리 급락에 힘입어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데 힘입어 상승 출발. 특히 달러 약세로 외국인의 현/선물 순매수가 확대되는 등 수급적인 요인도 긍정적인 영향. 이런 가운데 KOSPI는 인터넷, 반도체 업종이 KOSDAQ은 지속적으로 2차 전자 업종이 상승을 주도하는 등 주도주가 확실한 점도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긍정적. 이에 힘입어 KOSPI는 1.26%, KOSDAQ은 1.76% 상승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장 초반 애플의 힘으로 상승 출발했으나, 장 중 국채 금리가 상승 전환하고 달러화도 약세폭을 축소하며 상승분을 반납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미 증시의 특징처럼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져 4일 연속 상승을 뒤로하고 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부담.

한편, 파월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 관련 상원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금리 상승 전환과 달러 약세폭 축소 등은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물론, OECD 경기 선행지수를 통해 경기 선행지수 바닥이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한 점은 긍정적이거나,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 둔화세가 여타 국가에 비해 확연하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 특히 미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지수(-1.48%)가 상승 출발 후 금리 상승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 속 매물이 출회되며 낙폭을 확대한 점도 투자심리 위축 요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3% 내외 하락 출발 예상되며 차익실현 욕구가 높아 최근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군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확대돼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OECD 경기 선행지수 둔화폭 축소

2월 OECD 경기 선행지수는 98.57에서 98.46으로 둔화. 그러나 전월 대비로는 0.04 위축돼 지속적으로 전월 대비 하락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며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

미국 1월 공장 주문은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1.7%보다 둔화된 전월 대비 1.6% 감소했으나 예상치인 1.8% 감소보다는 양호.

유로존 1월 소매판매는 지난달 발표된 1.7% 감소에서 전월 대비 0.3% 증가. 다만, 예상치인 0.5% 증가를 소폭 하회.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천연가스, 온화한 날씨와 공급 증가 우려 속 급락

국제유가는 중국의 보수적인 올해 성장률 전망에 따른 수요 우려에도 불구하고 달러화의 약세로 상승 전환. 여기에 사우디 아람코가 4월 아시아, 유럽 인도분의 가격을 인상한 점도 영향. 한편, 천연가스 가격이 15%대 급락했는데 이는 향후 2주간 날씨가 온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가 부각된 영향으로 추정. 여기에 프리포트 공장이 서비스를 재개함에 따라 LNG 출하량이 급증한 점도 영향. 이 여파로 유럽 천연 가스 가격과 영국 천연가스 가격도 동반 급락했으며 미국 난방유와 석탄 가격 등도 1~2%대 하락.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홀츠만 총재가 향후 ECB는 4번에 걸쳐 50bp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유로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 여파로 달러화는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 다만, 장 후반 국채 금리가 상승 전환한데다 파월 연준의 발언 등을 기다리며 되돌림이 유입되자 약세폭 축소. 한편,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0.00% 약세를 보인 가운데 멕시코 페소도 약세를 보였으나 브라질 헤알은 강세를 보이는 차별화가 진행된 점도 특징.

국채금리는 지난 금요일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3월 회의에서 25bp 금리인상을 시사하자 크게 하락한 데 이어 장 초반 하락세 지속. 그렇지만, 홀츠만 오스트리아 총재의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으로 독일 등 유로존 각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청문회 등을 기다리며 상승 전환.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 초반 3.9%를 하회하기도 했으나 장 후반 4% 가까이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 점이 특징.

금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파월 연준의 발언을 앞두고 소폭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성장률 전망이 보수적으로 발표되자 보험권 혼조세를 보임. 곡물은 터키 외무 장관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에 대해 UN의 지원을 받아 재개될 것이라고 언급하자 밀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이 여파로 옥수수도 동반 부진. 다만, 대두는 달러 약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56% 상승한 반면, 철근은 0.19%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80.46	+1.13	+6.47	Dollar Index	104.321	-0.19	-0.34
브렌트유	86.18	+0.58	+5.23	EUR/USD	1.0679	+0.41	+0.66
천연가스	2.57	-13.29	-4.47	USD/JPY	135.95	+0.07	-0.17
금	1,854.60	-0.13	+1.50	GBP/USD	1.2020	-0.13	-0.36
은	21.14	-0.56	+1.57	USD/CHF	0.9317	-0.48	-0.44
알루미늄	2,382.00	-0.96	+0.80	AUD/USD	0.6730	-0.59	-0.13
전기동	8,920.50	-0.70	+1.35	USD/CAD	1.3616	+0.13	+0.30
아연	3,032.50	-1.46	+1.47	USD/RUB	75.5288	-0.16	+0.81
옥수수	637.00	-0.23	-0.82	USD/BRL	5.1587	-0.74	-0.81
밀	695.25	-1.80	-1.97	USD/CNH	6.9512	+0.81	-0.14
대두	1,529.00	+0.64	+1.04	USD/KRW	1,296.90	-0.36	-0.61
커피	180.30	+1.38	-3.30	USD/KRW NDF1M	1,298.20	+0.31	-1.40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968	+1.58	+5.34	스페인	3.697	+3.60	+15.70
한국	3.715	-5.70	+8.50	포르투갈	3.607	+3.20	+15.90
일본	0.506	0.00	-0.10	그리스	4.499	+1.10	+9.80
독일	2.749	+3.40	+16.70	이탈리아	4.575	+4.50	+15.7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